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대학생 여러분, 소비자피해 이렇게 해결하세요!

피해예방체크리스트

Q 방문판매

- 강의실이나 캠퍼스에서 "100% 자격증 취득, 특별할인, 무료" 등을 언급하며 충동구매 유도
- 학교·교수추천 장학혜택을 사칭하여 교재구입이나 강의등록을 권유
- 포장 훼손, 고의로 청약철회기간을 지연시켜 교묘히 환불 방해

"돈을 내지 않아도 계약은 이루어질 수 있어"

계약은 신중하게, 필요한 서류들은 거절하고 판매자 정보를 알아두세요. 방문판매로 구입한 상품은 계약한 날 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14일 내 청약철회(환불)가 가능합니다.

불법방문판매자료를 의심되면 사업자정보를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Q 다단계판매

- 다단계 판매원들이 취업·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친구들을 유인
- 합숙소, 필집방 등에서 합숙 생활을 하며 교육을 받도록 강요
-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집요하게 권유하여 수백만 원의 물품 구매·대출 강요
- 포장 훼손 등을 이유로 교묘히 환불 방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단기간 고수익 일지라는 의심해버려"

불법으로 의심되면 가입을 거부하세요. 상품을 구입했는데 환불을 하고 싶다면 사용하거나 훼손하지마세요.

불법다단계업체인지 등록여부를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Q 청약철회기간

방문판매·다단계판매는 계약일 또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자상거래·환부거래는 7일 이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Q 내용증명우편

청약철회나 계약을 해지할 때는 우체국이 보증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포등의 약이 체결된 미성년자인 19세 미만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사례1 방문판매원의 성명 등 정보 미제공

Q 한 남자가 강의실에서 학습교재를 홍보하는 거예요. 방문판매원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학교 관계자로 생각했는데, 설명이 끝난 후 직성한 신청서를 보니 방문판매원의 성명, 연락처 등 중요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어요.

A 방문판매원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방문판매원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밝혀야 합니다. 또 방문판매원은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방문판매업자의 성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적힌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사례2 포장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 거부

Q 캠퍼스에서 판매원이 인터넷강의를 신청한 교재를 무료 제공한다고 해서 계약을 했어요. 다음날 저에게는 불필요한 강의인 것 같아서 계약취소를 요구했으나, 교재 포장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계약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A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단순 포장 훼손의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방문판매로 인한 계약은 계약한 날 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14일 내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제품받은 제품이 심하게 훼손되었을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 될 수 있으니 제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사례3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유인

Q 다단계 회사 팀장이 많은 돈이 찍힌 통장을 보여주면서 저에게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가입하라고 권유합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드네요.

A 불법 다단계판매 회사에 가입해서는 안됩니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불법 다단계판매 회사에 가입하고 무리하게 투자(사채기 등) 할 경우, 고수익은커녕 투자원금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한국소비자원, 새학기 대학생 소비자피해 예방 캠페인 실시

대학생 소비자 피해는 방문판매나 다단계판매 등으로 인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입학 또는 개강 시기인 3~4월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대학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구체적인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강의실이나 캠퍼스에서 특별할인 등을 언급하며 충동구매 유도, 학교·교수추천을 사칭하며 교재구입이나 강의등록 권유, 계약 후 포장훼손 등을 이유로 청약철회 거부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새학기를 맞아 대학생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대학생 소비자피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해당 캠페

인은 2월 23일 대전 을지대학교를 시작으로 영남대, 대구한 의대 등에서 진행되었으며, 향후 다른 지역 대학에서도 개최 될 예정이다. 오리엔테이션 교육 및 교내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교육을 실시했으며, 캠페인 현장에서 실제 피해사례와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투명홀더 및 리플릿으로 제작해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지자체·소비자단체·대학과 협업하여 대학생 소비자피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해왔으며, 앞으로도 대학생 외 고령자·미인자 등 사회 배려계층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2018년 「사기피해방지의 달」 국제 캠페인 실시

한국소비자원은 소셜미디어 마케팅 부당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한 달 간 2018년 「사기피해방지의 달(Fraud Prevention Month)」 국제 캠페인을 실시한다.

사기피해방지의 달 캠페인은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가 사기성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매년 2~4월에 시행하는 연례 캠페인으로, 매년 20여 개의 ICPEN 회원국이 참여한다.

올해 캠페인 주제는 '소셜미디어 마케팅 부당행위'로, 소셜미디어 기반 광고 및 거래 과정에서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며 글로벌 소비자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셜미디어 관련 부당 마케팅 사례와 소비자 주의사항 등 피해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사기간 동안 3회에 걸쳐 홈페이지와 공식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 관련 정보를 시각화한 카드뉴스를 제공한다. 첫 회에는 '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해 구입한 의류·신발 소비자 피해', 두 번째는 '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한 유명 브랜드 사칭 해외직구 쇼핑물',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 가짜 후기 소비자 피해'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캠페인에 대한 소비자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사방달을

공유해주세요' 국민 참여 이벤트도 진행한다. 참여방법은 한국소비자원이 제공하는 카드뉴스 또는 캠페인 안내 포스터를 최소 3회 이상 공유하고 '참여하기' 페이지에 해당 링크를 남기는 것으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글로벌화하고 있는 소비자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 주관 '인터넷 청소의 날', '사기피해방지의 달' 등의 국제 캠페인은 물론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국제소비자제품안전기구(ICPHSO) 등 다양한 국제기구의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 International Consumer Protection and Enforcement Network) : 1992년 결성된 소비자보호 정부기관들의 네트워크로 한국소비자원, 미국 FTC 등 현재 약 58개국의 회원기관이 참여



한국소비자원

2018년 사기피해 방지의 달
국제 캠페인 국민 참여 이벤트

**사기피해
방지의
달**
Fraud Prevention Month

사방달을 공유해주세요!

사기피해 방지의 달이란 국제소비자보호 집행기구(ICPEN) 소속 각 회원국들이 소비자 사기피해 예방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국제캠페인입니다.

👉 참여방법

사방달 관련 카드뉴스 또는 이벤트 공지 게시글을
최소 3회 이상 공유하고, 공유한 링크를 제출해주세요.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공간에 공유공유!

게시글의 URL이나 이미지를 공유해주세요!
둘 다 공유하면 👍

이벤트기간

2018년 4월 2일(월) ~
4월 20일(금)

당첨자발표

2018년
4월 27일(금)

이벤트경품

온누리상품권
3만원(30명)

*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자 선정